韓國生藥報 (1975年6月20日 文公部登錄 라-1914號) 제121호

傘下支部動靜

▲慶北道 支部

安承官지부장은 지난10月 31日 安東郡所長 권응화氏 主管으로 3/4分期 녹생회를 召集, 기간중의 지역生藥유통 상황과 中央本部와의 業務支援현황을 報告하고 各郡別 유통展望을 交換한바 있다。이날 녹생회는 20여名의 會員과 本部事務局長이 參席하여 相互親睦과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忠北道 支部

李鍾喆支部長은 지난10月 31日 淸州市所長 우명규氏 주관으로 定例녹생회를 召集하고 기간중의 生藥유통정보 交換과 앞으로의 展望등을 討議하면서 會員間의 親睦을 더욱 공고히 한바 있다。

▲協會本部

事務局에서는 11月23日부터 이틀간 실시될 農協專門大學 藥用作物栽培敎育課程에 참여하기 위한 敎材편성 및 시간계획을 協調하고, 강사로서 事務局長이 참가키로 하였다。또한 12月초에 있는 농업기술자협회 초빙연사로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生藥조제시설자금배정건의=강원도 지역을 중심한 原州지역에 모든 생약제의 出荷商品가치 向上을 위한 調製기능을 담당할 시설을 88년도에 설치할 수 있는 자금배정을 관계당국에 건의 반영조치함。

○生藥 育苗圃 시설자금배정건의=전북지역을 중심한 이리지역에 20개 品種의 生藥材 育苗圃 시설을 88년도에 설치할 수 있는 자금배정을 관계당국에 건의 반영조치함。

※상기 두가지조치는 시설운영효과를 평가한후 가용시·도 지역에 축차적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임。

○生藥材 제품표준화 시행규정(안)에 대한 실행성 여부 검토건의=이안에 대한 자율적인 실행여부를 관계당국에 보고하여 검토를 건의함(현재 검토 및 협조진행중)。

농산물수입 억제해야

농협 87 임시총대회 열고 대정부건의

농협중앙회는 19일 하오 농협대강당에서 1천만 농민조합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87년 임시총대회」를 개최하고 ▲농산물수입억제 ▲중장기 농업자금 금리인하 ▲영농자금 지원규모확대 ▲영세농가에 대한 ▲농지구입자금 확대 지원 농기계 및 농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등 5개항의 대정부건의문을 채택,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승인된 88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따르면 영농자금 1조2천억원(올해보다 2천억원 증가)을 공급하고 토량개량제를 포함한 화학비료 2백26만톤(실중량)과 수도용농약 8천3백톤, 농용필림 2만1천톤등 각종자재를 공급키로 했다。

또 단위농협을 지역농업종합개발의 핵심체로 육성하기 위해 새마을소득종합개발사업지구 1백개를 새로 조성, 모두 9백21개소로 확대하기 위해 4백25억원을 추가지원하고 총1천6백58억원어치의 농산물을 공동출하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는 동시 농산물유통구조를 개선토록 하되 고구마, 맥주맥, 유채, 잠견, 옥수수등 가공원료 1천6백80억원어치를 수매하고 9천9백78억원상당의 농산물을 공동출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상업화 영농시대를 맞아 농산물의 상품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포장자재비 및 규격출하선도금으로 48억원을 별도지원하는 한편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총27억원의 장학금을 농촌출신 학생들에게 지급하며 5백50억원의 학자금을 대출해줄 방침이다。

이외에도 농협은 단위농협의 자립경영기반을 확립시키기 위해 봉사조합 50개를 새로 육성하고 농민조합원의 교육을 강화 1만2천여명의 농촌지도자를 양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농협은 각종농업자금 조달을 위한 저축추진계획을 세우고 87년말 현재 8조9천억원규모로추정되는 예수금을 10조8천억원 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백42개소의 단위농협에 온라인을 새로 설치, 단위농협 예수업무 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어민후계자 지원강화

지원자금 상환기간 일률 3년연장

사업자금도 추가지원키로

농림수산부는 농어민후계자들의 정착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신규 지원자금을 늘리고 이미 융자지원 자금의 상환기간도 일률적으로 3년을 연장,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농어민후계자지원자금은 상환기간이 최장 13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농림수산부는 우리 농어촌을 이끌어나갈 농어민후계자들이 하루속히 소득기반을 조성하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쌀농사·복합영농·원예작물을 선택한 후계자의 융자금 상환기간을 현행 3년거치 4~7년 균분상환을 3년거치 7~10년상환으로 ▲사과·포도등 과수작목은 5년거치 5년균분상환을 5년거치 8년상환 ▲축산은 3년거치 4년상환을 3년거치 7년상환 ▲특작(인삼)도 4년거치 3년균분상환에서 4년거치 6년상환 ▲수산도 어선어업·축양어업은 3년거치 7년균분상환에서 3년거치 10년상환, 어패류양식과 해조류양식도 3년거치 4년균분상환에서 3년거치 7년상환으로 각각 3년씩 연장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한 현재 차등 지원자금을 90년까지는 일률적으로 1천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4년이상된 농어민후계를 선정기준에 가점(加點)을 주어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또 연간 1백명씩 보내는 해외연수를 2백명으로 대폭 늘려 대상지역을 유럽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농민수산부는 농어민후계자를 농업전문학교·영농교육이수자를 우선선정하며 농고의 자영농과및 여자졸업자중 희망자는 전원 선발하는 한편 83~84년 소입식 후계자에 대해서 원금상환 기간을 2년 연장하되 이자는 정부가 대지급(代支給)하고, 0·5ha 미만 영세농어가의 후계자에 대해서는 당초상환기간에 불구하고 상환기간을 3년거치 7년상환으로 하고 금리는 3%로 인하했고, 여자후계자가 결혼할 경우는 남편거주지로 이전 또는 형제자매에게, 후계자가 사망할때는 배우자·형제자매중 적격자에게 각각 승계할 수 있도록 하며 사망후계자는 상환기간을 1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이러한 지원배경에 대해서 농림수산부 南鍾佑농정과장은『농어민후계자사업이 실패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농어민후계자를 보다 정예화하고 기반확충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농림수산부는81년~87년까지 농어민후계자 3만9천4백44명에게 2천8백10억7천6백만원을 지원했다。

전국 藥師대회

萬3千여명 참석…醫保참여등 촉구

대한약사회(회장·金明燮)는 24일 하오2시 서울蠶室실내체육관에서 전국1만3천여명의 약사가 참가한 가운데「국민봉사다짐 전국약사대회」를 열고 신뢰받는 전문직능인으로서의 사명완수·약국의 의료보험참여및 의약분업실현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金貞烈국무총리는 치사를 통해『정부는 약국을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으로 지정 약사의 전문직능이 발휘되도록 하는 확고한 기본방침을 세우고 있다』며『약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약사수련제도도 구체적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年末총通貨증가율

20~21% 전망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올해 총통화증가율이 연말억제목표선 18%를 크게웃도는 20~21%에 이를 전망이다。

최근 선거철을 맞아 통화당국의 돈관리가 느슨해진데다 시중에 흘러넘치는 돈을 빨아들이기 위한 통화안정증권을 비롯한 각종 통화조절용채권마저 제대로 소화가 안돼 이처럼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4일 통화당국에 따르면 이달중에도 수출호조로 국제수지흑자폭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부문에서 약8천억원, 정부부문에서 추곡수매자금방출및 선거를의식한 조기공사착공등으로 약9천억원, 민간부문에서 6천억원등 모두 2조3천억원의 돈이 풀려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총통화증가율을 18%선에서 억제하자면 이중 1조원이상을 거두어들여야 하는데 통화조절용 채권발행실적은 24일 현재 계획금액 1조원의 30%인 3천억원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이어서 이달중 통화증가율은 20%를 훨씬 웃돌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화당국은 12월중에도 연말결제자금수요등이 겹쳐 11월과 비슷한 2조원안팎의 돈이 풀릴 전망이나 단자회사등 제2금융권의 통화안정증권 인수재원이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어서 통화안정증권의 소화가 여전히 부진할것으로 보여 올해 총통화증가율은 억제목표선 18%를 2~3%포인트 초과한 20~2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면에서 계속〉

직경 1m에 달하는 큰 교목으로 줄기 윗쪽에서 가지가 벌어져 사방으로 퍼지고 크고 넓은 날개 모양의 잎이 제일 먼저 눈에 뜬다。5월경 새잎과 함께 수꽃과 암꽃이 각각 별도로 피어나고 과실은 외피가 극히 단단한 핵과이다。

4、채취…가을에 성숙한 과실을 채집한다。

5、조제…채취한 과실은 껍질을 벗겨서 핵과를 끄집어 내어 충분히 햇볕에 잘 말려서 약제로 쓴다。

6、이용…동맥경화증 자양강장약으로 쓰인다。

후박=(厚朴)

○과 명:목련과
○속 명:화후박 적박
○약용부:껍질

1、기본…이 후박나무는 목련과에 속하는 교목이다。

2、생장적지…해변가양지바른 산이나 언덕이 생장적지이다。

3、특징…높이가 25cm 정도에 달하고 잎은 크고 길며 표면은 농록색이고 후면은 하얀털이 있다。꽃은 5월경에 가지의 끝에서 피고 그 색갈은 엷고 황색을 약간 띤 흰꽃이다。과실은 긴 타원형이며 성숙하면 붉은 씨앗이 밑으로 매달린다。

4、채종…성숙한 씨앗을 채취한다。

5、파종…씨앗은 채취즉시 모래속에 묻어두었다가 이듬해 3월경에 파종한다。

6、채취…가을에 껍질을 벗겨 말린다。

7、조제…벗겨 채취한 껍질을 말린다。

8、이용…건위강장、비뇨거담 해외수출。

황정=(黃精)

○과 명:백합과
○속 명:죽대뿌리
○약용부:뿌리

1、기본…백합과에 속하는 종류가 많은 다년생 숙근초이다。

2、생장적지…산과 들 물기가 가까운 언덕에 잘 자란다。

3、특징…이 황정은 그 종류가 많이 있어 높이가 50m에 달하는 것으로부터 1m 50cm정도에 이르는 것도 있다。잎의 종류와 품종에 따라 여러가지 형상을 하고 있다。꽃은 초여름 5월경에 피어나며 잎겨드랑이에 매달린다。

백합과에 속하는 황정이라 불리우는 외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옥지초、태양초、순격、구황조 마전、계격、비영 등。

이 황정의 뿌리가 약용부위다。이 뿌리는 흑갈색빛을 띠고 있으며 오랜해를 지난것은 그 뿌리의 굵기도 대단하다。또 뿌리에는 관절이 있는것과 없는것이 있다。관절이 있는 뿌리를 생강수 황정(진황정)과 관절이 없는 뿌리를 지황평 황정(위수)라 한다。

4、채취및 조제…뿌리는 늦가을에 캐내어 물에 여러번 씻어 번후에 햇볕에 말린다。

5、이용…자양강장약으로 병후회복、소모성열병 영양불양 구해。

〈독자투고〉

감

늦가을의 농촌정경이라면 무엇보다도 빨갛게 달려있는 감을 연상케 할 것입니다。

시인이나 사진작가가 아니더라도 시를 연상하고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은어느 누구라도 다 느낄 것입니다。

감은 극동지방이 원산지인 만큼 우리와는 매우 친근함이 있읍니다。

제사상에는 으레이 감이 올라가고 곶감이 놓여지는 것을 볼 수 있읍니다。우리나라의 강원도 강릉과경북 상주、충북 영동지방등지는 감의 주산지인 만큼 요즈음 가보면 곶감만들기에 바쁘기만 합니다。

그리고 단감의 주산지로는 경남 진영등이 널리알려져 있읍니다。

감의 주성분은 포도당과 과당등의 당분과 비타민C라고 할 수 있으며 감두개라면 어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비타민C를 충족시켜 줄만큼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감은 시지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유기산류가 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감의 종류는 떫은감과 떫지 않은 단감이 있는가 하면 모양은 가지각색인가 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재래종감을 집주위나 밭뚝、논뚝 산기슭에 몇그루 심어놓은 정도로 그 감으로 집안의 큰일상이나 제사상에 올려졌으나 지금은 가정용과수에서 탈피 집단적으로 많이 심어 농가의 소득증대에 일억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래도 아직은 감나무를 심을만한 땅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됩니다。

떫은 감은 완전히 익어도 떫은 맛이 나며 떫지 않은 단감은 익기전에는 떫은 맛이 많았으나 요즈음은 품종개량으로 익기전에 단맛을 내는 단감도 많이 있읍니다。

감의 떫은맛은「시부올」이라고 하는「탄닌」산의 작용 때문인데 덜익은 감이나 떫은 감은 탄닌산이 물에 쉽게 녹아서 혓바닥의 점막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이 탄닌으로 굳어져 떫은 맛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단감은 익어 가면서 탄닌산이 쉽게 녹지 않게 변해버리기 때문에 떫은맛이 나지 않고 단맛이 난다고 합니다。

떫은 감은 탄산개스、알콜、소금물 따스한 물등으로 처리하면 시브올이 잘 녹지 않게 되어 떫은 줄을 모르고 단맛이 난다고 합니다。

감은 속보다 껍질부분이 영양가가 많은 만큼 껍질을 얇게 깎아서 먹든가 농약을 치지 않은 감나무의 감은 씻어서 그냥 먹는 것이 영양가에 있어서는 더욱 좋다고 합니다。

감은 설사를 멎게 할뿐 아니라 배탈을 낫게 하는 효과가 있기도 한데 그것은 다름 아닌 감에 많이 들어 있는 탄닌산이 수렴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에는 지혈작용을 하기도 하는데서 피를 토하는 뇌일혈 환자에게 감이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읍니다。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만큼 감기와 고혈압 예방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은 감나무가 많은 지방에 고혈압 환자가 적은 것을 볼 수 있는데서 알 수 있읍니다。

딸국질을 할때는 감꼭지 3개만 달여 물을 먹으면 잘 낫는다고 합니다。뱀이나 독충에게 물렸을때 감을 썹어서 바르면 해독재가 되기도 합니다。갑자기 설사를 할때는 곶감과 석죽 껍질을 같은 양으로 달여 마시면 설사가 멎는다는 민간요법도 있읍니다。

감은 우리와 매우 친근한 과일이면서 영양가도 많으며 각종 약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 만큼 집주위와 논뚝 밭뚝 유휴지를 비롯하여 산기슭에 심어도 좋을 것이기에 여기 소개하는 바 있읍니다。

감나무는 낙엽교목으로 발육성이 왕성하고 비교적 병충해가 적어 재배관리가 용이 합니다。감은 그 성숙기의 기온상태에 따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온화한 지방일수록 우량과실을 생산할 수 있는데서 남부지방에서 좋은 품질의 감이 많이 생산되고 있읍니다。끝。

주소=경북 월성군 내남면 망성1리 886번지 권순채 ☎경주 43·3282